

2008년 11월 14일 금 말씀

나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죽는 사람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막상 죽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걱정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불행하다고 하지만 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받은 길을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걱정 마십시오 나는 잘 있습니다.

나는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잠을 못 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면 15년 이상 20년은 또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약해지면 아무리 넓은 세상에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깥에서 죽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40대 50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죽어갑니다. 그러니 건강을 꼭 살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월남에서 별을 4개나 달고 전쟁터에서도 다 이기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건강 때문에 죽는 지도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건강 주의하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좀 긴장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겪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겪어야 된다고 설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픈 것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난 것도 알고 좋아진 것도 알고 (하나님의)위력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겪어서 알아야 하나님도 주십니다. 기성교회 다닐 때 아프면 '기도해도 왜 이렇게 안 낫지?'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보다 천배, 만 배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파서 다 쓰러질 때까지, 다 완전히 기진맥진 할 때까지 간신히 생명만 놔둡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살려주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루에 보통 2~3번은 싸우셨습니다. 3천 번 이상은 싸우셨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아버지가 소리를 껍뻍 지르고 어머니와 싸우니까 무서워서 아버지에게 안 가고 어머니에게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집안 망신 시켰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면 잘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3일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효도했습니다. 이것, 저것 심부름도하고 만날 아버지 손잡고 좋아했습니다. 큰 형, 작은형은 아버지 생전에 효도를 못해서 그제 한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벌써 돌아가셨을 건데 내가 결혼도 않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 같이 모시고 사니까 제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살게 되었고 정신이 좋아져서 나를 찾는다고 합니다.

부모끼리 서로 싸우는 거 이해가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서로 하나 되어 이야기가 잘 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잘 못했다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야 가슴이 풀어질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진작 어머니에게 했으면 벌써 화해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잘 해 주는 것입니다. 내 선물은 댄 게 없습니다. 나를 잘 만들어 나가면 애들이 새로워하며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멋있게 해서 나가면 그것이 선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면 뭐 해주려고 기다렸는데 거기까지 안 오면 진짜 약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갑니다.

군대 가서 더 똥똥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가서 뒤집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잘 챙겨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걱정합니까? 먹을 것을 신경 쓰고 입을 것을 신경 씁니까? 그러나 영계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너무 육적인 것에 낙을 삼습니다. 거의 90%이상이 빠져서 삽니다.

부부끼리 새로운 마음을 먹고 살면 그게 새로 결혼을 한 것만큼 똑 같습니다. 아무리 젊고 멋진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살아도 서로 싸우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서로 심정상 하면 안됩니다. 인간 끼리나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서로 잘 해야 천국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하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많이 해서 폐도 좋아지고 눈도 좋아졌습니다. 2천리 넘게 뛰었습니다. 많이 뛴 것입니다.